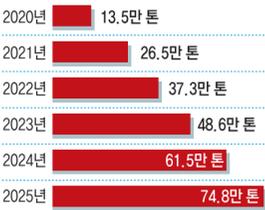


# SKC, 9000억 투자 유럽 최대 '동박공장' 세운다

폴란드에 5만톤 규모 9000억 투자 100% 투자 SK넥실리스 건설 돌입 2차전지 제조사들과 접근성 용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 계획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글로벌 수요 전망



\* 자료 제공 : SNE 리서치

SK그룹의 화학·소재 기업인 SKC(대표이사 박원철)가 폴란드에 유럽 최대 규모의 동박 공장을 건설한다.

SKC는 2차전지용 동박사업 100% 투자자 SK넥실리스가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 E-모빌리티 산업단지에서 동박 생산공장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설에 돌입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폴란드 동박 공장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이은 SK넥실리스의 두 번째 해외 생산시설이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용 2차전지 필수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 ● 2024년 하반기 본격 양산 시작

총 9000억 원을 투자해 생산능력 5만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2024년 상반기까지 짓는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현지 동박 공장 중 최대 규모다. SK넥실리스는 사양상, 고객사 인증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아체코 사인 폴란드 부총리, 루치우슈 나드베레즈니 스탈로



박원철 SKC 사장이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 E-모빌리티 산업단지에서 열린 SK넥실리스 동박 공장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바볼라 시장, 안제이 아담치크 폴란드 국토개발부 장관 등 폴란드 정부 주요 인사와 임민인 주폴란드한국대사, 박원철 SKC 사장, 이재홍 SK넥실리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E-모빌리티 시장의 선도 기업 중 하나인 SK넥실리스의 혁신 기술 사업이 폴란드에서 진행한다는 점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폴란드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투자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SK넥실리스 폴란드 공장은 주요 글로벌 2차전지 제조사 공장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유럽 배터리 제조사들의 역내 공급망 구축 기초가 심화

하는 상황에서 현지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규모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 SK넥실리스가 신규 설비에 적용하고 있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완전이행도 가능하다. SK넥실리스는 E-모빌리티 산업단지에 총 연산 15만 톤까지 증설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유럽시장 성장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가 증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 유럽, 북미, 아시아 글로벌 생산체제 확보

SK넥실리스는 스탈로바볼라 공장을 포함해 2025년까지 한국과 말레이시아, 유럽, 북미 등에서 연산 25만 톤 규모의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이미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5만 톤 규

### 동박이란

동박은 배터리 음극재 소재로 전기차(EV)의 핵심 부품이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동 경로 역할을 맡을 뿐 아니라,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기도 한다. 동박 제조에는 동과 같은 재료를 알고 넓게 펼치는 기술이 필요하다.

모 공장을 착공해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북미에도 연산 5만 톤 규모의 동박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현재 증설 후보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북미 공장까지 양산을 시작하면 SK넥실리스는 전락·기술 지원 및 고부가 제품 생산을 맡는 한국과 현지 고객에 밀착 대응할 수 있는 유럽 및 북미, 가격 경쟁력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 공략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말레이시아 공장까지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SK넥실리스가 이처럼 동박 생산 능력을 확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동박은 머리카락 두께 15분의 1 정도의 얇은 구리 막으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원료로 쓰인다. 두께는 얇지만 뛰어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기술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생산 능력 확대가 곧 글로벌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SKC 관계자는 "폴란드 스탈로바볼라 공장은 연산 5만 톤의 규모 및 뛰어난 고객 접근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확보 용이성 등을 갖춘 '유럽 No.1 동박 생산 기지'가 될 것"이라며 "2025년까지 글로벌 생산규모를 연산 25만 톤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R&D 투자로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해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중화학

스포츠동아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15



한화임팩트는 8일 10개 회사와 함께 F급 가스터빈에 수소혼소 발전을 적용하는 실증사업 정부과제 수주 및 수행을 위해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를 가졌다. 관계자들의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한화임팩트

## 한화임팩트, 수소혼소 사업 가속화

국내 기업 10곳과 기술협력 체결 F급 가스터빈 수소혼소 실증 추진

한화임팩트(대표이사 김희철)가 수소혼소 발전사업 확대에 나선다.

한화임팩트는 8일 국내 10개 회사와 함께 F급 가스터빈 수소혼소 실증사업의 정부과제 수주를 위한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11개 회사를 대표해 한화임팩트 임재환 부사장, 한국서부발전 최용범 부사장, 한화파워시스템 김현우 경영지원실장, 한전KPS 허상국 부사장, 가스로드 김영만 대표이사, 금화피에스 김경태 대표이사, 선보유니텍 김청욱 대표이사, 성일터빈 우타관 대표이사, 창원기전 박봉규 전무이사, 티보파워텍 정택호 사장, 한울항공기계 이승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수소혼소 발전은 가스터빈에 수소와 천연가스를 같이 연소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소 발전으로 가는 전 단계다.

기존의 노후화된 가스터빈을 일부 개조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송전망 등 전력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화임팩트는 이날 모인 10개사와 함께 F급 가스터빈에 수소혼소율을 최대 70%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최대 39% 저감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은 한화임팩트 대산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B급(80MW급) 가스터빈 수소혼소 실증사업에 이어 발전용량이 더 큰 F급 가스터빈에도 수소혼소를 적용하는 정부과제 수주를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서부발전은 실증용 F급 가스터빈과 부지를 제공하고 한화임팩트는 실증 과제 및 연소기 개발을 총괄하며 연소기 부품제작 관리 등 전반적인 과제 수행을 맡는다. 한화파워시스템은 혼합 연료공급장치 국산화 개발을 총괄하고 한전KPS 및 여러 참여기관은 가스터빈 시스템 진단 및 부품 국산화 제작을 담당한다.

한화임팩트는 수소혼소 발전 전용 연소기 및 제어시스템 등 수소혼소 가스터빈 발전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수소 혼소율 35%의 가스터빈 발전을 상용화했다. 미국에서도 수소혼소율 40%를 적용하는 개조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최재경 기자 hk7048@donga.com

## 두산에너지빌리티, 국내 첫 '유럽 원전 안전 국제표준 인증' 받았다

유럽 시장 진출 위해 'ISO 19443' 취득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유럽 국제표준 시험인증기관인 TUV SUD로부터 ISO 19443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ISO 19443은 원자력 사업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 관리 표준이다. 기존 국제 표준에 비해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 정도와 원전 기자재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사전 위험성 평가 여부를 강화해 진단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인증 취득을 위해 '원자력 안전 중심 조직문화 구축', '위/변조 예방 체계 구축', '주요 품목에 대한 위험 분석 및 관리'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요건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받았다.

체코,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 국가 원전 운영사들은 원전 주기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ISO 19443 인증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내에서 최초로 인증서를 취득했으며 이는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나기용 원자력BG장은 "이번 인증서 취득으로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둔 원전사업 품질경영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등 원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eremony for ISO19443 certificate July 6, 2022



분당두산타워에서 열린 ISO 19443 인증서 수여식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 원자력BG 강홍규 상무(왼쪽)와 TUV SUD Korea 서정욱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두산에너지빌리티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13일(수) 음력: 6월 1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을 수 있으니 크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는 태도를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들과 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오늘은 대화의 운이다. 이성 관계를 조심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위기는 극복 되겠다. 영똥한 짓을 하기 쉬운 날이다.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히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이 많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드,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력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시시한 일들로 인해 해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이므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한 야기 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라. 서두르지 마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무리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돼지머리 만나 자문을 구하면 좋겠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본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특색하게 된다.

### 오늘의 날씨 13일(수)

서울	인천	춘천
90/90	90/90	80/80
24 25	24 26	22 25
강릉 60/80	대전 60/70	전주 70/60
22 25	24 28	24 29
광주 60/30	대구 60/60	부산 30/30
24 28	23 28	23 27
창원 30/30	제주 3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3 27	27 34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6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